

# <2021 한반도 평화 석학 초청 강연시리즈>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사업기관: 한국정치연구소

사업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권형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한국정치연구소	6340		

주요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급	
조하람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정현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이슬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노태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박은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 결과보고서 요약

사업기관	한국정치연구소		
사업명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 초청 강연시리즈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권형기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업기간	2021.3.1.~2022.1. 31	사업비	

### 1. 사업 목적

- 정치·외교 분야의 한반도 평화 논의 촉진
- 한반도 평화 분야 ‘석학’ 강연 개최
- 대면 및 비대면 강의를 통해 통일, 평화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 2. 사업 내용

서울대학교 학내 구성원 및 학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 초청 강연을 총 6회 개최하였음. 2021년 4월 30일 제1회 강연으로 시작하여 11월 19일 제 6회 최종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주최 하에 수행되었음.

### 3. 사업 성과

- 통일, 평화 분야 전문 석학들을 학내외 모두에서 연사로 초청, 강연 개최.
- 공개 강연으로 서울대 구성원 및 외부 참가자들에게 강연 참석 기회 제공.
- 학술강연회 자료집 발간.
- 한국정치연구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강연 게재, 후에 열람 가능하도록 업로드.

## < 목 차 >

1. 사업 배경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초청 연사단 구성
  - 일정별 추진 사항
3. 사업 성과
  - 강연 회차별 요약
  - 성과 보고
  - 관련 분야 기여도
4. 예산
  - 예산계획
  - 실제 예산 집행
5. 자체평가 및 건의 사항
6. 성과 관련 지표

# 1. 사업 배경

## □ 개요

- 사업명: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 초청 강연시리즈
- 기관명: 한국정치연구소
- 사업비: 17,000,000원

## □ 추진 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 정치·외교 분야의 한반도 평화 논의 촉진

-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된 2018년 이후 통일과 평화 연구에 대한 학계와 민간의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남북미 관계 등을 다루는 다양한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음.
- 학내에서는 학제 통합적 관점에서 평화학 포럼,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는 통일평화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의제를 설정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외 국제학연구소, 중국연구소,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를 다루는 강연회를 개최하였음.
- 그러나 정작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정치·외교 분야의 학술강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학내에서 한국정치연구소가 통일 평화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정치의 과거,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그 제반 문제를 다루는 학술강연회를 마련하고자 함.

### ○ 목적

#### : 한반도 평화 분야 석학 강연

- 기존의 한반도 평화 관련 학술강연회는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 등과 같이 세부적인 주제를 테마로 설정하여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 해외학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였음.
- 한국정치연구소가 개최하는 학술강연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야 국내 우수한 석학을 초청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의 기원을 분석하고 현재를 위치시키며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을 공유하고자 함.

## 2. 사업 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 주제: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 초청 강연
- 기간: 2021년 (2021년 4월 30일-11월 19일 / 총 6회)
- 대상: 서울대학교 학내 구성원 및 학외 참가자 (공개 강연)
- 주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및 정치외교학부
- 초청 연사
  - 1회: 김학준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2회: 하영선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3회: 박상섭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4회: 박찬욱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5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 6회: 하용출 워싱턴대학 석좌교수
- 진행 방식: 회당 총 2.5시간으로 구성
  - (사회) 한국정치연구소장 연사소개 (약 5분)
  - (발표) 초청 석학의 발제 (약 60분)
  - (쉬는 시간)
  - (문답) 대면 및 비대면 참가자 질의응답 (약 60분)
- 강연 장소
  - 대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국제회의실  
301호 소회의실  
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 비대면: 줌 및 유튜브(채널: 한국정치연구소)

### □ 초청 연사단 구성

이 름	약 력
1회 김학준	피츠버그대학교 정치학 박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前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 前 단국대학교 이사장

	<p>前 인천대학교 총장 前 동아일보사 사장 및 회장 前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p>
<p>2회 하영선</p>	<p>워싱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現 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 前 한국평화학회 회장 前 국가안보자문단, 통일준비위원회 위원</p>
<p>3회 박상섭</p>	<p>서던일리노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前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 석좌교수 前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정치학 교관</p>
<p>4회 박찬욱</p>	<p>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前 서울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교육부총장, 대학원장 前 한국정치학회 회장, 세계정치학회 부회장 前 국회 입법조사처, 미래한국헌법위원회, 국회원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前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前 국무총리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 前 듀크대학교, 와세다대학교 초빙교수</p>
<p>5회 백학순</p>	<p>펜실베니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명예 연구 위원 前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前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체평가 위원장 前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자문위원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원장 前 서울-워싱턴포럼 사무총장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한미관계특별위원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p>
<p>6회 하용출</p>	<p>UC버클리 정치학 박사 워싱턴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 前 상공부 사무관</p>

	前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前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통일포럼 위원장 前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前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 前 외무부, 통일부, 국방부 자문위원
--	--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1년 4월 30일(금)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초청 강연 시리즈 1회 : 이상(환상?) 그리고 현실: 북한에 대한 기존 접근법과 발상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
2021년 5월 27일(목)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초청 강연 시리즈 2회 : 21세기 아태신문명 재건축과 한반도
2021년 6월 25일(금)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초청 강연 시리즈 3회 : 통일과 북한을 다시 생각한다
2021년 9월 10일(금)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초청 강연 시리즈 4회 : 21대 국회 첫 1년 의정에 대한 소고
2021년 10월 20일(수)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초청 강연 시리즈 5회 : 한반도 평화대전환, 2017~202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021년 11월 19일(금)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초청 강연 시리즈 6회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와 전략적 함의

### 3. 사업 성과

#### 1) 강연 회차별 요약

#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 초청 강연시리즈

## 회차별 요약

- 1회 - 김학준 교수(이상 그리고 현실: 북한에 대한 기존 접근법과 발상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
- 2회 - 하영선 교수(21세기 아태신문명 재건축과 한반도)
- 3회 - 박상섭 교수(통일과 북한을 다시 생각한다)
- 4회 - 박찬욱 교수(21대 국회 첫 1년 의정에 대한 소고)
- 5회 - 백학순 명예연구위원(한반도 평화 대전환, 2017~202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6회 - 하용출 교수(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와 전략적 함의)

## 1회

강연 제목: 이상(환상?) 그리고 현실: 북한에 대한 기존 접근법과 발상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

- 2021년 4월 30일(금)
- 연사: 김학준(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Abstract: 비정치학적 에세이. 북한에 대해 어려서부터 체험했던 일들, 그것을 통해 형성된 관념, 독서를 통해 갖게 된 지식을 중심으로 비 정치학적 에세이를 작성 & 강연.

### ■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전언을 통해 갖게 된 소련과 공산당에 대한 반감

- 부모님과 형님이 목격, 체험했던 소련군의 만행
  - 진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에서의 모습 공산당은 총알을 아낀다고 돌로 사람을 때려죽였다
  -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공산당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무신론자이다
- 소련, 공산당에 대한 반감 어릴 적에 형성

### ■ 6.25 전쟁이 심어준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반감

1) 전쟁 때의 분위기, 특히 공산당 치하에 있을 때 - 늘 살벌했음.

그들의 말대로라면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한 본인의 가정이 여유를 누리고 살아야 마땅한데, 역설적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채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했음. '반동분자' '인민재판' '숙청'을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자, 그것에 대한 질식할 것만 같은 두려움.

2) 미국 참전, 공산군을 곧 물리칠 것이라는 소식

그 말이 '구원의 말씀'이나 다름 없었다.

3) 후퇴하던 북한군의 청주형무소 방화 사건.

나중에서는 남한군도 양민학살을 저질렀음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형무소 안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전율, 북한에 대한 큰 반감 가지게 됨.

4) 중공군, 1.4후퇴에 의해 다시금 피난길에 오르며 '중공 오랑캐'에 대한 적대감 또한 가지게 됨.

### ■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에 접하다

-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진오 선생의 잉여가치론, 노동가치론 이론 소개, 비판 글을 읽게 됨. 나라의 가난함, '모리배'의 착취에 대한 비판의식을 본래 갖고 있었는데, 이것에 비추어 글을 읽게 되니 잉여가치론, 노동가치론 하나로 세상 전체를 읽어낼 수 있을듯한 환상에 빠져들음.

- “마르크시즘 비판서를 읽다가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위해 그 전제로 소개한 마르크스의 이론 그 자체에 빠져들었네”

- 그 후 남북 통일에 대한 방법으로 '제3의 이데올로기',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에 관심 가짐.

- 더하여 '수렴'론(이동화 선생의 책); 남한, 북한이 서로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변화시켜 결국에는 한 이념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것. 에 큰 관심.

## ■ 문리대 입학직후의 교내 분위기

1961년 4월,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

1) 본관 1층 벽, 커다란 유화가 있었음.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학생 몇이 서서 대화하는 모습. 독일 대학생은 셋이 모이면 독일 통일을 토론했다라는 제목.

2) 문리대 교정 한가운데에 플래카드 '반봉건, 반제국, 반매관': 미제국주의에 반대, 매관자본에 반대.  
→ 미국에 반대한다는 것에 충격.

## ■ 『네오 이데아 소사이어티』 발족에 참여하고 양호민 교수의 '반공적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다

- 네오 이데아 소사이어티(Neo-Idea Society)라는 서클 발족에 참여해 '제3의 이데올로기'를 찾기 위한 책임기에 착수.
- 라스키의 국가론, 모택동의 모순론 등 여러 책 탐독
- 마르크시즘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당시 '마르크시즘 연구의 쌍벽' 양호민 교수를 직접 찾아뵙고 지도 요청  
-> 알프레드 마이어 교수의 레닌이즘을 비롯한 원서 공부.
- 양호민 교수는 마르크스올로지스트(Marxologist)와 마르크시스트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

## ■ 김일성의 '자주'와 '주체'에 대한 비판

- 조선일보 기자로 사회 생활 시작
-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조운 로빈슨 교수가 발표한 '코리아의 기적'(논문)을 읽고 김일성에 대한 '자주', '주체'에 대한 궁금증 생김. => 양호민 교수의 답: 민족과 국가를 위한 주체, 자주가 아니라 독재자 자기자신의 주체와 자주이다!

## ■ 미국 유학 시절의 공부

-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옥살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도 당함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유학을 서둘러 준비하여 출국
- 미국 석사(오하이오주 켄트주립대학교), 박사(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공부, 그 때의 내용들
  - 1) 6.25전쟁에 대하여. 피츠버그에서 공부할 때, '좌파 수정주의학파'가 전쟁의 책임을 트루먼, 맥아더, 이승만에 돌렸던 것에 놀랐음.
  - 2) 마르크시즘과 세계 공산주의에 대하여. '마르크스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휴머니즘'이며,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는 스승의 철학을 철저히 왜곡했다'는 결론 내림.
  - 3)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공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승인을 통해 국제사회로 끌어내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 4) 1962년 가을 발생한 쿠바미사일사건, 이에 대한 케네디행정부의 대소협상에 대하여. 핵전쟁의 위기 해소는 소련의 양보만이 아니라 미국의 양보가 크게 작용했음에 공감.
- \*엘리슨 교수 협상성공의 요체는 상대방에게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양보하는 데 있다

##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연구

서독, 동독, 오스트리아의 중립화통일에 대한 연구, 남한, 북한과의 비교

1) 동서독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많이 달랐다.

동서독은 분단을 불가피한 것으로 바라보되,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접촉하자는 정책 추진. 접촉과 변화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을 실현시키는 '수렴'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2) 오스트리아의 중립화통일은 오스트리아인에 의한 단일 중앙정부가 세워졌기에 가능했음.

## ■ 매듭을 지으면서: 잠정적인 생각들

0) 독일통일은 '통일이라는 명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는 원칙을 지켰기에 가능했다. 개인적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양보하지 않고, 서독이 스스로를 '매력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1) 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북한에서도 인민의 삶에 보다 충실한 개혁적 지도자, 세습 지도자가 아닌 지도자가 나타나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2) 김정은체제의 북한을 대함에 있어 민족주의라는 명분을 그대로 유지해야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북한주민을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대하는 것은 옳지만, 김정은과 김정은 체제를 민족주의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악한 존재'일지라도 협상으로 유도해야한다. '돈으로 산 평화'라도 '피로스의 승리'와 같은 비극적 전쟁 엔딩보다 낫다.

3) 북한주민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북한주민의 탈북을 인정해야한다.

4) 우리가 해양국가의 일원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생각.

## 2회

### 강연 제목: 21세기 아태신문명 재건축과 한반도

- 2021년 5월 27일(목)
- 연사: 하영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Abstract: 한반도 평화를 미국과 중국의 아태 전략에 비추어 살펴봄. 3월 알래스카 미중회담, 5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분석하며 국제 질서 안의 한국 조망. -> 한국은 새롭게 구축된 중국과 미국의 아태 신문명 아래, 그물망 매력국가로 변화해야한다.

### Contents

1. 아태 문명의 역사적 변환
2. 아태 신문명 재건축: 미국과 중국
3. 미국의 인태전략
4. 중국의 아태전략
5. 21세기 한국의 그물망매력국가

\*강의안이 없어, ppt 첨부; [<21세기 아태신문명 재건축과 한반도\\_발표자료>](#)

### 3회

#### 강연 제목: 통일과 북한을 다시 생각한다

- 2021년 6월 25일(금)
- 연사: 박상섭(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Abstract: 통일과 북한을 남한의 정치 과정, 북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재고찰. 분열의 정치학으로 흘러온 논의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비판.

1 남북 분단 이후 통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최고 정치 이상으로 여겨져옴

2 그러나 통일의 정치학은 실제로는 **분열의 정치학**으로 흘러감. 한국 정치의 분열, 남북 통일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

3 통일이 우리의 이상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인 최고의 목표는 아님**. 이것을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 가치, 우리가 양보해야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솔직하게 토론해보아야 함.

4 오늘의 논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배제. 예를 들어 군사적 정복에 의한 통일, 흡수통일 같은 것.

5 통일과 관련된 정치과정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임.

흥미로운 것은, 통일 정치과정의 주요 무대가 **남한의 정치계**라는 점임. 북한도 통일 문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든 부정적 반응이든) 꽤나 적극적인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일들은 **남한의 정치계**에서 벌어짐.

6 북한을 국가로서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유엔 가입을 인정된 것은 목적이 있었던 일. 국제적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남북한 관계의 해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음.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았을 때, 이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리라 기대.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

7 더하여, 남한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내정치의 변혁과 맞물리면서 진행.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마치 대북한 정책 완화가 '민주화의 일부'라는 커다란 오해가 생겼기 때문. 대북한 유화정책이 곧 '진보'적 정책이라는, 사실과 거리가 먼 오해.

8 이러한 오해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배경이 되어 양산됨. 권위주의 체제 존립에 '반공'이 주요한 정당성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9 민주화랑 북한을 동일하게 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 북한이 '피억압 세력'이었던 적이 과연 있는가? 왜 북한의 억압적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10 이제 북한은 과거와 달리, 본인들의 대리인들을 이용하여 남한의 정치과정에서 큰 역할 하는 중. .

11 정치적 안정을 수반하는 통일 작업을 원한다면, **북한의 내부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변화의 방향은 이미 북한의 이름(DPRK)에 나와있음. 이름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함.

## 4회

### 강연 제목: 21대 국회 첫 1년 의정에 대한 소고. 다수당 독주, 양극적 갈등과 실종된 협치

- 2021년 9월 10일(금)
- 연사: 박찬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Abstract: 2020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된 제 21대 국회 첫 1년 의정의 두드러진 특징을 서술하고 분석하는 에세이. 1)국회가 지키고 보여주는 자율성과 독립성, 2)원내정당 갈등의 전개와 관리를 기준으로 논의.

#### ■ 던지는 질문

- a. 권위주의 시기 한국 국회를 중심 무대로 한 의정의 특징은 어떠한가?
- b. 민주화 이후 20대국회까지 의정의 특징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지속성이 있으며 또한 어떻게 달라졌는가?
- c. 현 21대 국회 첫 1년 의정의 양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d. 민주화 이후 전개되어 온 의회정치는 현재 발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퇴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e. 21대 국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정 운영을 전환하여 한국 민주주의 정치의 질적 고양을 견인할 것인가?

#### ■ 권위주의 체제 시기 의정의 특징

- 1) 제도로서의 자율성 내지 독자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
- 2) 권위주의 시기, 원내정당 간의 관계는 다수의 횡포에 소수가 극력 저지로 맞서는 양극적 갈등으로 점철되었음. 갈등 해소는 계속해서 어려웠음.

#### ■ 민주화 이후 13대~20대 국회 의정의 특징

- 1) 민주화는, 국회가 권위주의 시기에서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음.
- 2) 여야정당 간 갈등이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확립된 절차에 의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유지.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 독주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으며, 야당이 갈등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됨.

#### ■ 21대 국회 첫 1년 의정: 줄기찬 여당 독주, 깊어진 양극적 갈등, 사라진 합의와 협치

-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은 **명료한 양강 경쟁구도**(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vs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를 보이며 치뤄짐. 제3세력인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은 모두 합쳐도 양강 구도를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더하여 20대 국회 말에 가서야 우여곡절을 겪고 **준연동비례대표제가 도입**됨. 그러나 그 본래 취지와 달리 양강 구도 완화의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음.
- 21대 총선 결과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180석 획득. 민주화 이후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가장 높은 의석률.

- 이것은 여당 독주의 발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재적 의원수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했기에, 개헌 정족수는 충족시키지 못해도(3분의 2) 그 외의 안전 처리와 국회운영에서는 의사 관철이 가능하게 된 것.
- 가장 처음으로 부딪혔던 것은 **상임위원장직 배분**. 민주화 이후 국회는 13대에서 20대까지(30여년에 걸쳐)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과 비례하여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음. 단독 원내 과반수를 가진 다수당이 있는 경우에서조차 그 관행은 이어져 옴.
- 사실상의 야당의 거부권 행사 지점이 된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직**(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에 양보한 이후 줄곧 야당 몫으로 분류돼왔음.
- 의석수에서 크게 약세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맡게 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직도 거부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감.

- 21대 국회 첫 1년 의정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하자면,

1) 민주화 이후 선형 국회와 비교하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되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 취약성이 드러났음. 즉슨, 행정부와의 분리가 안되었다!

- 국회의 대행정부 위상을 말해주는 상징적 사건 중 하나: 국회 수장이었던 정세균 국회 의장이 21대국회 첫 1년 중 11개월 동안 국무총리를 역임한 것.

- 대통령이 논쟁적인 정책의제를 추진하는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예로, 2020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임대차3법의 통과를 당부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까지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신속 입법시킴.

2) 거대 여당은 줄기차게 독주하고 야당은 제동을 걸기에 역부족.

-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합의제 운영을 소홀히 함.

- 21대국회에서의 법안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포함한 13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28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 절차가 생략되어 만나질 정도 소요됨. 29일 법사위와 30일 본회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단 28시간 만에 가결되었음.

- 12월 8일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법사위 안전조정위가 구성되었음. **안전조정위**는 당초 소수 의견을 배려하기 위해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하고 최대 90일까지 숙의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조정위에서 다수 확보를 위해 여당에 준하는 군소정당 열린우리당 소속 최강욱 의원을 야당 몫 중 1인으로 선임. 그 결과 안전조정위는 무력화되고 개최 77분 만에 종료되었음. 당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야당의 반대토론 신청은 묵살되었으며,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8분만에 기립표결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었음.

■ 결론: 21대국회 의정 운영의 방향

국회법의 정신은 의회주의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여, 소수를 존중하면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다수의석을 기반으로 협치가 성사되지 못했음. 즉슨, 의회민주정치가 발전은 커녕 퇴영을 하고 있는 것. 국회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정책역량을 발휘하는 균형 의회**'(a policy responsive legislature with balancing power)가 되어야 한다!

## 5회

### 강연 제목: 한반도 평화대전환, 2017~202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2021년 10월 20일(수)
- 연사: 백학순(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 Abstract: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반도 평화 대전환의 사건들을 북미관계, 그 안에 남한의 역할을 중심으로 개괄적 설명. 이제는 남한이 북미관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야하며, 한반도 평화 대전환에 대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기울여야함을 주장하는 강연.

#### ■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시작: 배경, 선택, 목표

- 한반도 평화 대전환은 (핵)전쟁 위협, 한반도 평화정책의 염원을 배경으로 시작됨. 핵 전쟁 위협에 대한 좌절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한국문제를 증후치료와 함께 근본원인을 치료해야한다는 생각으로.
- 한반도 평화 대전환은 크게 2가지로 조명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 시작.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자 했음.金正은의 2018년 신년사를 보면 알 수 있듯, 북한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했으며, 미국과 중국도 긍정적인 반응.
- 둘째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들, 공동성명, 합의가 있었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에 있었으며, 두 달 뒤인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있었음.

- 2가지 선택의 목표는 전쟁과 적대의 정체성을 평화와 화해 정체성으로 대전환하자!

사고방식, 인간관계, 행동양식, 생활방식, 정책,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음.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흥미롭게도 **한반도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였음,

북한과의 관계를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음.

#### ■ 북미관계: 북핵문제와 북한미사일 문제

##### (1)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 목표와 정책

- 북한은 중국과 미국을 두고 **균형전략**을 펼침.

1991년 10~12월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면서, 소련 붕괴 후 소련의 자리에 미국을 끌어들이었음. 동시에 외교에서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을 저울질 하는 균형전략을 추구.

-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더라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자는 것이 우선.

- 이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 주고받기 전략을 가지고 6차례 협상 시도. 김정은이 2018년부터 트럼프와 협상한 것이 그 6번째 시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의 대분 정권교체의사를 확인, 결국 회담 후, 북한은 '새로운 선행'을 요구하는 대미관계를 **장기성을 띤 과제**로 정리하고, **국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노선 변경.

## (2)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정책수단

- 미국의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군사,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

- 핵 문제에서는 3S(nuclear Safeguards;비핵화, nuclear Security;핵확산 방지, nuclear Safety;핵발전소 사고 방지)를 목표로 하였음.

- 대화와 협상 vs 압력과 제재 / 군사적 수단 vs 비군사적 수단(외교적 협상) 중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할지 계속해서 고민 & 변화.

## (3) 북미협상: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스톡홀름과 그 이후

- 북미협상은 양국의 **비대칭적인 '목표'와 '심리'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을 비교해볼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4대 합의(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미국유해 발굴/송환)가 이루어졌음. 김정은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군사)안전을 보장하였음. 이를 통해 북미의 나름의 신뢰가 구축됨.

- 그러나 2018년 7월 7일, 폼페이오의 방북이 있었으나 김정은 접견 불발되고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이 실패함. 북한은 자신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요구하며 싱가포르 합의 중 나머지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임.

- 7월~8월, 북미 대결 분위기는 강화되고, 9월 6일,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제2차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이에 대한 결과로 10월 7일, 폼페이오가 방북하여 제2차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 회담에서 김정은은 9월 6일자 서한에서 시사한 것 **이상을 언급**하였음.

-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2019.4.12)에서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 미국과의 관계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됐다. **어차피 제재 또한 지속될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동시에, 자국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

평화대전환을 원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북한에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새로운 계산법이라 하면 '대북 정권교체 시도 포기, 대북 평화공존 정책 요구, 이를 위해 미국이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적대시 정책 폐기'를 의미한다고 역설.

## ■ 워싱턴에 직접 가기 vs 서울을 통해서 가기

북미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 남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대전환에서 배제될 구조적 위험성이 있음. 남한은 자신의 역할 규정을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로 설정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 **한반도 평화대전환은 어디로?**

- 비핵화 vs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폐기에 대하여 미국은 '제재는 풀어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반면 북한은 '협상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의 새로운 셈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기 때문에 미국의 진정성 증명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생각.

- 아직까지는 북미간의 관계, 그 중간의 남한의 역할 정립에 난관이 많은 상황. 이러한 상황에도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계속해서 시도해야하는가?에 대한 양립된 주장 존재.

논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지속시켜 나가야함**을 주장하며 발표를 마칩.

## 6회

### 강연 제목: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와 전략적 함의

- 2021년 11월 19일(금)
- 연사: 하용출(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워싱턴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
- Abstract: 한국의 정체성을 역사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국가 정체성이 중요성을 역설. 정체성의 위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 문제 제기와 강의의 요점

- a.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미치는 **역사적 요인**은 무엇인가?
- b. 한국 산업화와 정체성 위기 **정체성, 왜 문제인가?**
- c. 한국 정체성 문제의 원인: 국내적 및 국제적 원인
- d. 정체성의 **위기와 결과**
- e. 정체성과 **국가안보 전략적 사고와의 관계**
- f. 정체성을 고려한 **안보전략의 사례**

#### ■ 한국의 국제적 정체성에 미치는 역사적 요인

- 한국은 예로부터 종주권 질서 안에서 형성되어 왔음. 정체성이 외부적으로 규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약소국 프레임, 지정학적 숙명론 안에서 구성되어 옴.
- 더하여, 식민지 시기는 깊은 굴욕의 경험, 열등의식, 활발한 상상력, 비현실적 전략과 수동적 대처를 유산으로 남김. 미국 중심적 질서에 본격적으로 귀속된 한국전쟁까지 맞이하면서, **한국 정체성은 수동적으로 규정되었다.**
- 수동적 정체성은 단일 강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며, 원시적이고 단순화된 '적과 아'의 구분으로 세분화 된 적과 우방 개념을 실종하게 됨. 이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균형된 외교 실천을 어렵게하는 원인으로 작용.
- 그러나, 한국적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수동적 정체성에서 능동적 정체성으로 점차 전환되었음.

#### ■ 후발 산업화와 근대화 및 근대성

- 후발 산업화의 특징으로는 자국의 후진성과 열등을 인식, 의식한다는 것, 급박성과 긴급성 하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흥미롭게도, 후발산업화와 전통은 상호 작동함. 산업화가 늦으면 늦을수록 전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전통은 산업화의 촉진제 역할을 함.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서도 전통을 단순 활용하여 전통적 제도와 가치의 **체계적 검토 없이 상황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였음.
- 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의 재창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는 것. 미국의 영향과 박정희의 급박성 아래에서 비체계적이고 무질서한 전통적 가치 중심의 활용,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서구 학문체계의 결합이 한국사회의 현재적 위치와 미래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제약 요인이 되었음.
- 예로, 한국에서 시민 없는 시민사회와 국가가 만든 시민사회를 흔히 목격하게 됨. 개인주의와 사육주의는 구분되지

않고,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비해 민주주의 공고화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음.

## ■ 정체성과 안보

- 한국의 정체성은 자주적 정체성 규정과 피동적 규정 두 갈래로 형성되었으며, 피동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정체성은 현재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나, 그 결과는 긍정적임.

- 정체성의 위기에 대하여 Erikson은 '정체성 위기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을 깊게 분석하고 탐구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였음. 정체성 위기는 1)Foreclosure 2)Identity achievement 3)Identity diffusion 4)Moratorium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정체성을 탐구하지 않고 가치나 목적을 정하는 **Foreclosure** 상태와 정체성은 활발히 추구하지만 안착하지 않은 상태인 **Moratorium** 그 **중간 어디즈음** 있는 듯 보임.

- 한국은 국제적 정체성을 점차 능동적 규정으로 옮겨가는 중. 역동성 있고 능동적인 민주주의 체제 완성 과정이 그것의 한 축.

- 국가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안보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함.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역사프레임과 영토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 것.

**미국**과도 아시아와 세계관계에서 한국 사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한국민주주의가 미국민주주의 보다 더 적실성을 갖는 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

**일본**에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 있음. 지리적 역사적 근접성에 집착하여 상호 이해가 잘 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해야함.

- 정체성을 고려한 안보전략의 사례로 타이완을 들고, 강연 마침.

## □ 성과 보고

### ○ 학내외 석학 초청

- 한반도 평화 관련 논의는 학내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연사 선정 때에 학내 인사로 한정 짓지 않고, 학내외 석학 중 통일 평화 관련 다양한 연구자들로 선정 및 초청.

### ○ 공개 강연

- 본래 활발하게 진행되던 통일 평화 관련 강연들 대부분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심각할 정도로 침체되었음. 비대면 강의들로 부분 대체되고 있으나, 현장 참여 강연에서의 연사와 참여자 사이의 직접적 소통, 현장성 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함.
- 본 강연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여 방역 지침 유의 하에 매 회차 대면 강연을 제공하였음.
- 더하여, 서울대 구성원 및 외부 참가자들에게 모두 홍보 메일 발송. 참석자 또한 학내 인사로 한정하지 않고 강연 참석 기회 제공. 결과적으로 학외 연구자들의 꾸준한 참석이 관찰되었음.

### ○ 학술강연회 자료집 발간

- 매회 강연마다 연사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자료집 발간
- 발간된 자료집은 학내외 참여자에게 배포

### ○ 한국정치연구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강연 게재

-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 강연 요약 게재
- 유튜브 [한국정치연구소] 채널에 강연 영상을 업로드 해두어 추후에도 강연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

## □ 관련 분야 기여도

### ○ 한국 정치 기반 & 다양한 시각에서의 통일 평화 논의

- 기존에 통일, 평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에 반면, 한국 정치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부족하였음. 이따금 한국 정치 기반의 강연회가 이루어졌으나,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간과된 채 한국-북한의 관계 정도로 한정되었음. \*여기서 한국 정치는 한국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 형태를 의미함.
- 본 사업은 한국 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하였음. 이를 위해 한국 중심으로 본 외교, 한국 중심의 북한 분석,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시대적 변화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강연을 개최하였음.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사업평가

#### ○ 사업의 적절성

-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분야들이 전문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서 받아들여지는 생각임.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생각’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고 있음. 통일을 논하고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한 필요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에, 석학 초청 강연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통일기반 구축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여짐.

#### ○ 사업의 효율성

- 대면 및 비대면 강연에 대한 적극적 참여  
: 코로나 시기임을 고려하여 대면 진행을 기본으로 두되, 동시에 줌 및 유튜브로 비대면 송출하였음. 대면 강연에는 꾸준히 참석하는 학내의 참여자들이 있었으며, 유튜브는 모든 강연 영상의 조회수가 100회를 넘겼음. 2시간 남짓의

긴 강의였다는 것을 함께 고려할 때, 강연 개최와 대면&비대면 동시 사용은 효율적 선택이었다고 생각됨.

- 알찬 문답(토론) 시간

: 위에서 언급했듯 강연 말미에 문답시간을 가졌는데, 대면&비대면 참석자의 질문이 아주 활발하였음. 한국 정치-통일 연결고리 간에도 여러 다양하고 깊은 전문 분야가 있고, 그 분야별로 전문 석학을 모신 것을 고려해볼 때 답하기 쉽지 않은 다른 분야의 질문들도 제시되었으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연사의 강연에서 해소가 가능한 식으로 진행되었음.

○ 사업의 영향력

- 대면 강의 제공

: 코로나 19가 발생한 후, 대면 강연들이 대폭 취소 또는 축소되었고, 평화 통일 관련 대면 강연 또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 새로운 대안으로 비대면 강연들이 활발하여졌으나, 확실히 연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젊은 세대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1회부터 6회까지 쪽 대면 강의를 개최해왔음. 이것은 사회과학대 내의 비교적 넓은 공간 대여가 가능한 것과, 사전에 참여자 신청을 받는 것에 의해 가능하였음. 결과, 정치외교학부의 석박사 연구생들, 학외 고연령층의 참석자의 강연 참석이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다른 비대면 강연의 대면에 대한 재고를 고무시켰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유튜브의 강연 영상 지속수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으며, 이것은 평화 통일 강연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 한국정치를 기준으로 통일을 보았을 때, 다뤄져야 할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다는 점, 정치학과 뿐 아니라 외교학과, 그리고 여타 다른 학과들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짐.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코로나 시기의 강연 진행

- 기존에 제출했던 계획안과는 달리, 코로나 시기에 의해 예산 집행이 본래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음. 특히나 식사, 간식이 대폭 축소되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듯 함.

○ 강연 주제 세분화

- 강연 주제를 미리 좀 더 세분화해서 초청 연사들을 분야에 빈틈이 없게 배치하면 더 좋았을 듯 함. 더하여 연사 목록을 시작부터 예고하면 홍보에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사무용품 배당 금액

- 대면과 비대면 송출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 사무용품 또는 전자 용품에 사용되는 비용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이 필요하였음. 사무용품 항목을 금번 사업 예산 금액보다 늘리는 것이 필요.

## □ 향후 계획

### ○ 강연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확장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이번 제1회 김학순 교수님의 강연에서 다루어졌듯, 시대적으로 한국이 겪어온 통일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특히 그 세대 연구자가 1950년대에 초,중,고등학생이었던 세대이기에 관련 분야의 석학 초청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금번 강연의 주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정치-통일 관련 강연의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하고자 함. 그것을 기준으로 각 분야마다 강연을 구성하여 확장, 개최하고자 함.

## □ 건의사항

- 일정 및 의무사항 미리 고지 및 확인

## 6. 성과 관련 지표

### □ 대표 사업 실적

- 매 달 1회 강연 개최

### □ 성과 자율 지표

- 사업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6회의 강연 개최
- 6회의 강연 중 5회 자료집 발간